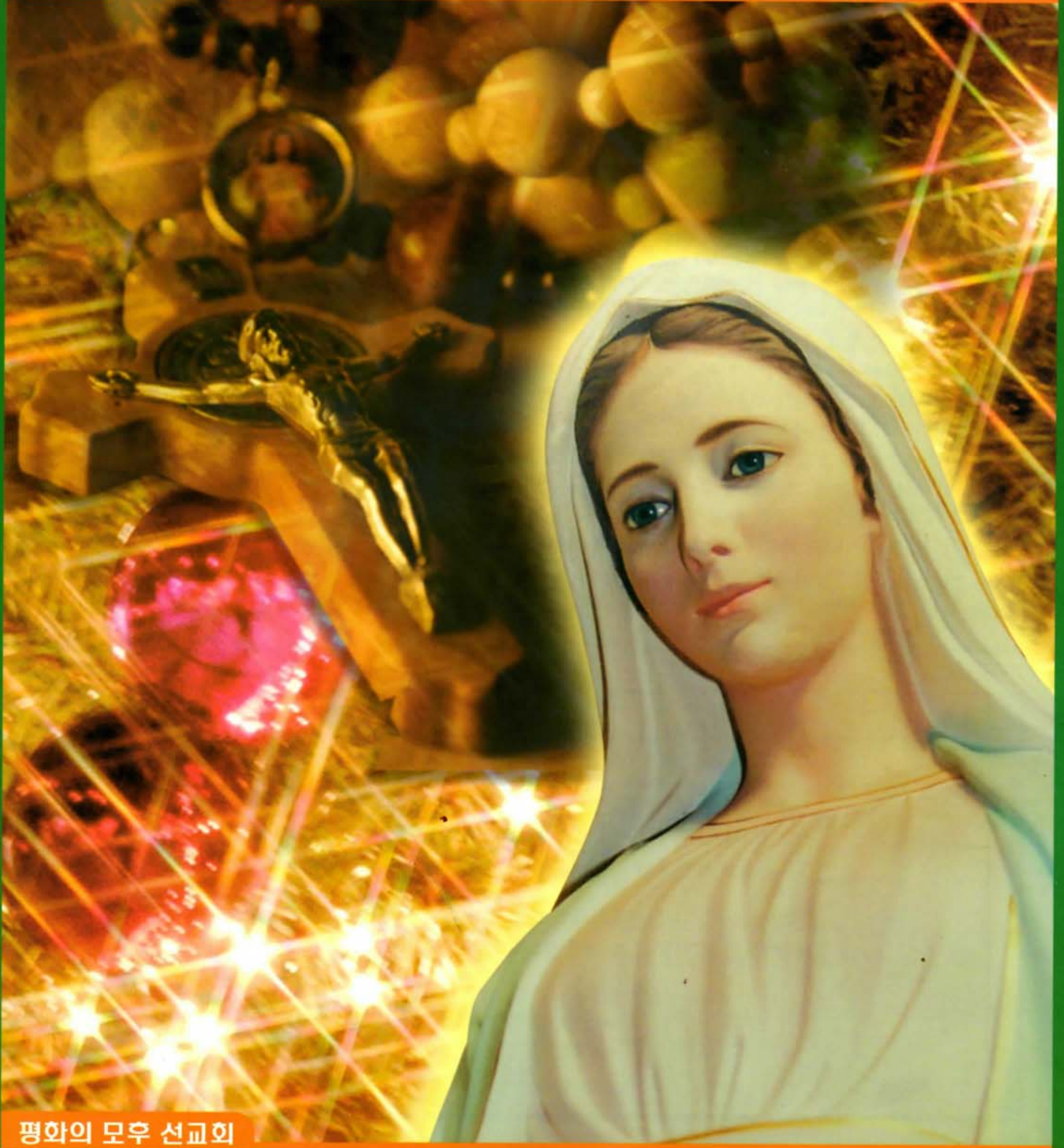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Medjugorje

DECEMBER, 2005 제30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오늘도 역시 기도가 너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기도, 기도하
 라고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이 시기에 나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한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만 너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
 다. 너희의 마음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기쁨에 넘칠 것이다. 나는 너
 희들과 함께 있으며 부드러운 애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2005년 11월 25일 메시지

마리아 성체성사의 여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10월 23일 '성체성사와 성체의 해'를 주제로 한
 시노드 폐막 미사 후 삼중기도를 하기 전에 강론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지난 2004년 10월에 개막했던 성체의 해에
 관한 시노드 폐막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바티칸 대성당에서는
 다섯 명의 새 성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충실한 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체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어
 머니이신 마리아의 자녀로서 그분을 공경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간 이 성인들은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꾸준히 일
 치하면서 어머니의 보호 아래 살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모두 성체성사의 여인이신 마리아께 시노드
 와 성체의 해에서 나오는 영적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과 일치하여 성장하도록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분의 사랑을 전할 증인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05년 10월 31일자 - 마리아 뉴스에서 발췌 >



MERRY CHRISTMAS

지난 한 해에도 선교회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후원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축복으로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 드립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 남홍익 그레그리오
 후원회장 · 권수정 레지나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 신부님들을 봉헌합니다.
- 모든 사제들, 특히 어려운 일에 봉사하시는 사제들을 보살펴주세요.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 성모님, 신 바오로 가정이 당신께 청하는 기도를 보살펴 주세요.
- 두 아들이 화해하고 성 가정을 이루도록 보살펴주세요.
- 성모님, 저처럼 아픈 모든 이들의 고통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예수님, 성모님, 나의 모든 죄를 봉헌하오니 용서해주소서.
- 낙태된 태아들의 영혼과 위험에 있는 태아들을 봉헌 합니다.
- 가족들의 신분 문제 해결되어서 웃으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 성모님 안드레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돌보아주세요.
- 콜롬버스 공동체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저희 가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 시댁 가족들과 오빠의 쾌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 최희선 가정과 스티브 가정에 아기를 주시어 성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 언니와 동생가정에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 드려요.
- 예수님, 성모님 제가 성내지 않고 매사를 침착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 올리안나 가정을 봉헌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 아버지가 내적 치유를 받으시고 진실한 고백성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데이비드 마음의 치유와 올바른 미래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 칠순을 맞이 하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 드리오니 영육간에 축복해 주소서.
- 불쌍한 동생이 올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 종신서원을 감사 드리오며 충실한 가르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 마약, 컴퓨터에 중독된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 25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모든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이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 카드리나로 큰 피해를 당한 뉴 올리언스 한인 성당의 교우들과 신부님을 도와주세요.
- 35차 순례단이 받은 은총을 감사 드리오며 좋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 최규인, 박순녀와 병으로 투병중인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양미카엘라, 김마리아, 김헬레나, 정카타리나, 민마르코, 홍진유, 권글라시아, 김베드로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주세요.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11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였고,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본 신앙 교리성은 메주고리에로의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신앙교리성 Pr. No 154/81-06419 1998.5.26.)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메주고리에'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학교이며,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곳을 다녀오지 않은 이들은 메주고리에가 교회에서 아직은 '성모발현지'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의 방문을 꺼려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실제로 몇몇 한국 신부님들은 메주고리에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나에게 격정 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교회인가도 나지 않은 곳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말이다. 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 중'임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즉,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1998년 교황청은 길베르 오브리 주교님으로부터 메주고리에 순례에 대해 공식적인 문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메주고리에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본 신앙 교리성은 그 곳으로의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신앙교리성 Pr. No 154/81-06419 1998.5.26.). 오히려, 교황청은 권고하고 있다. 교황청 산하에 있는 성지 순례 센터인 Opera romana pellegrinaggi에서는 2년 전부터 성모 성지순례지로서 메주고리에에 순례자들을 보내고 있다. Opera romana pellegrinaggi는 교황청에서 인준하지 않는 곳은 순례를 하지 않는 곳인데 유일하게 메주고리에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의 깊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메주고리에에 가보기를 권한다.

나는 이번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35차 순례 팀의 일정이 예전과 달리 요조 신부님과 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깊은 회개와 치유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다. 물론 내 자신도 하느님과 성모님께 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지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 사제가 성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중요한 직무인지를 3차에 걸친 메주고리에 순례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일곱 색깔의 무지개와 성체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다. 요조 조브코 신부님의 피정을 하기 위해 피정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버스에 타고 있던 피정 참석자들은 모두 태양 옆에 떠 있는 무지개와 성체의 형상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내 얼굴에서도 그 형상을 보았다고 한다. 무지개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야훼 하느님께서 하늘에 띄워주셨던 것이고,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현존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세워주신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표징과 함께 우리는 피정을 시작했다.

요조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섬세하게 잘 느끼고, 표현하시는 분이셨고 우리의 회개와 용서를 가속화시키는 봉사자이셨다. 그분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제이며 또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충실한 삶으로 드러내면서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한 예언자였다. 같은 사제로서 참으로 닮고 싶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으며 성모 마리아의 자녀였다. 피정은 '부자청년의 이야기'(마태 19,16-26)로 시작하여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인 하느님을 향한다는 기본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의 구원 신비들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현존이 지금의 성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구원역사의 내용들을 감수성 강한 제스처와 애정이 가득한 어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무엇보다, 여러 비유들과 상징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주셨다.

아침, 낮, 저녁에 하는 묵주기도는 요조 신부님의 깊은 묵상과 함께 우리에게 기도의 참 맛을 알게 해주었다. 주로 입으로만 하던 묵주기도를 온 몸, 온 마음 그리고 온 정성으로 바치도록 이끌어 주셨다. 매일 저녁에 있었던 미사 때는 전례를 전공하고 있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성체성사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와 사랑을 각자가 쉽게 느낄 수 있고,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요조 신부님의 독특한 묵상 방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외적인 형식보다는 마음 깊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요조 신부님의 영적 감수성에는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해야 했다. 무엇보다 요조 신부님께 마음 깊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피정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 하나 마음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께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제의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하셨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참으로 겸손한 사제였다.

순례와 피정 기간 중에 나는 틈나는 대로 고해성사를 주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깊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치유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자들의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각자의 얼굴에서는 무거운 짐자가를 벗어 놓은 평화로움이 보였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마치 타볼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처럼 말이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모습도 바뀌었다. 나는 '영혼의 때밀이'가 되어, 열심히 영혼에 묻어 있는 죄의 때들을 밀어 주다 보니



내 육체는 피곤해졌으나, 영혼은 기쁨의 환호성을 쳤다. 그러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맑고 평온한 모습이 되어갔다. 함께 했던 피정자들은 메주고리예로 돌아와서 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신앙 가족임을 느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 시작했다. 전에는 자신의 문제로 끔찍 앓던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신앙 가족이 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기도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임을 알게 된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오랜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생활의 기본 원리를 확인해주신 성모님의 10월 달 메시지는 현대의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외적인 활동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참으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바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도록 성모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다. 세속원리를 믿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게 만든 하느님 상에 대고 기도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요즈음의 우리들이다. 이번 순례는 믿음을 가지고 온 몸, 온 마음, 온 정성으로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스러움을 계속 지닐 수 없음을 배운 소중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지향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서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느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 요조 신부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한국에도 참된 고해사제가 필요합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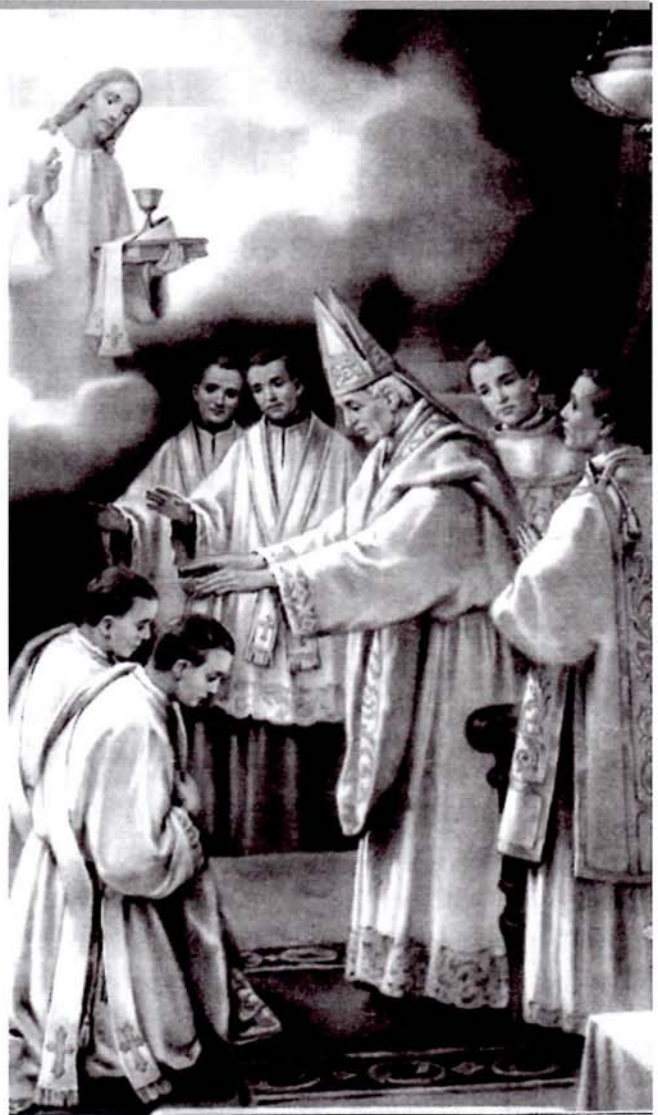
그대들은 사제직을 통해 서로 도우십시오

1994년 1월 11일

생명을 주는 이로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사랑의 신비와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한 이들의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내 성심에 풍성하게 자란 사랑의 풀이 있는 초원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이들이 없어서 많은 영혼들을 잃었습니다. 내 사랑 안에는 나를 찾는 이들의 갈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 안에 풍성한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탄과 애절함을 지닌 연민의 마음으로 그대들을 나의 성심으로 부릅니다. 그대들은 모두 형제들이며 나는 그대들에게 나의 사제직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위임했습니다. 특히, 인간 존재의 유일하고 참된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모두에게 주기 위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거룩한 성체의 형상으로 현존하였는데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 대한 구원까지도 그대들에게 맡깁니다.

그대들에게 맡겨진 무수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그대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찾는 악마들로부터 그대들을 지키는 장벽이 되는 그대들의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대들이 사랑과 증거의 삶을 통해 내 현존을 보다 잘 느끼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봉헌된 그대들은 사제직을 통해 서로 도우십시오. 거룩한 성체에 현존하는 나에게 영혼들을 인도하십시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들은 내 사랑 안에



서 삶의 참된 기쁨과 인간적 사명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잃을 것이 없기에 나에게 오는 이들은 모두가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의 망토로 그대들 모두를 감싸고 보호합니다. 그대들의 삶을 나에게 의지하여 내 거룩한 영에 의한 성화와 사랑의 수많은 결실, 그리고 행복한 내세를 위한 기반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그대들의 성장을 위한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내 성심으로 언제나 그대들을 축복하고 보호합니다. 아멘.

1994년 3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내 자녀여! 내 성심에 있는 상처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대의 영혼이 내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특히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에게 청합니다.

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들의 성덕과 그대들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그대들의 마음이 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따뜻하게 되어 그대들이 더 이상 악행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창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은 유일한 선인 나를 향한 열정과 마음의 헌신, 그리고 그대들의 증거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덕의 은총은 내 성심에 있으니 나에게 오는 이는 이 은총으로 가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나의 빛,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밤, 낮으로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기를 청합니다.

나는 나를 찬미하기 위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과 나를 모든 희망과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육체와 영혼의 살아있는 양식으로 흠송하며 받아 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 있는 햇불로 만듭니다.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도록 하십시오. 나

는 항상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목자들에게 나를 내어 주어 성덕과 사랑을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이 완전성을 추구하도록 해줍니다. 나는 늘 내 사랑으로 그대들과 동반합니다. 그리고 항상 잃어버린 이들이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대들은 늦지 않게 돌아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들의 사랑으로 위로 받기 원하는 내 성심은 지금도 그대들을 기다리며 계속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상처로 그대들 모두를 정화시키고 있으니, 그대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이 되어,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나는 제대의 성사, 거룩한 성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그대들과 그대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순수함과 성덕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강복하며 내 사랑으로 그대들을 지켜줍니다. 아멘. **M**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도 방법이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 동안 성체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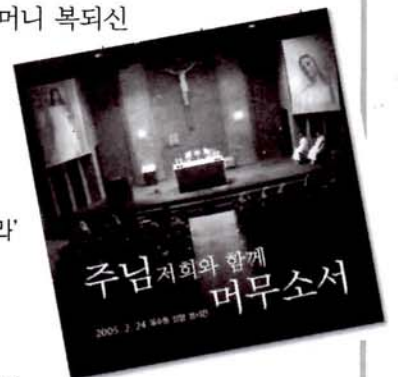
앙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슬리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번역/ 신경남신부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메주교리에 서적 보급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성 바로 서원 (714-638-3855),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323-730-1499)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프랑스의 마자랭 가(街) 22-24번지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을 실제로 본 사제가 공적으로 증언한 실화이다.

"나는 현재 보르도 Bordeaux에 있는 성에 우리 성당 가까이 사는 델로트(Delort) 신부입니다. 로레따 단체의 장상이신 노아이(Noailles) 신부님께서 이 수녀원에 성체 강복 시간에 가실 수가 없으므로 제게 대신 가줄 것을 부탁하셔서 지난 3일, 오후 4시에 수녀원에 갔습니다.

성체강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성체를 감실에 꺼내 성광(聖光, 큰 성체를 가운데 모시는 기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려고 성광을 쳐다보았습니다. 성광 안에는 방금 전에 분명히 놓았던 그 성체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가슴, 팔이 그 성광 안에 계시어, 마치 예수님의 그림을 액자 안에 모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한 빨간색의 스카프가 어깨 위를 덮고 있었고, 그 분은 머리를 약간 한쪽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내가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혹시 저 성광 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 원장 수녀님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오셔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디어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성광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쏟아지는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성가를 부르며 성체강복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성광 안에 계셨습니다. 그 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도 그 광경을 보고 감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나는 무슨 용기에서인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광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성광을 들고 신자들에게 강복하여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성광 안에 그대로 계시면서 팔을 드시고 직접 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광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성광을 제대 위에 놓으니 성광 안에 계시던 예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성체가 있었습니다. 나는 온 몸이 떨리었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 이 흘러 나왔습니다.

(1822년 2월 5일 이 기적을 목격한 사제는 공적으로 이것을 증언하는 서명을 하였다.)

이 모든 기적들은 우리의 지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성사의 신비를 가르쳐 준다. 성체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과 신성과 인성으로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성체 안에 이렇게 현존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모독하는 모령성체(합당한 준비 없이 대죄 상태에서 성체를 받을 때)의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벌을 합하여 벌하여도 충분히 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합당한 준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고, 둘째, 대죄 상태에 있지 않고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며, 셋째, 성체를 모시기 전 한 시간 동안 공복제를 지켜야 한다. 대죄를 지은 경우는 꼭 고해 성사를 보고 용서를 받아야 성체를 모실 수 있으며, 성사를 보지 않고 성체를 영하면 모령성체를 하는 것이 된다. **M**

<퍼온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에게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 축일,
새해 첫 달 첫 토요일 (77.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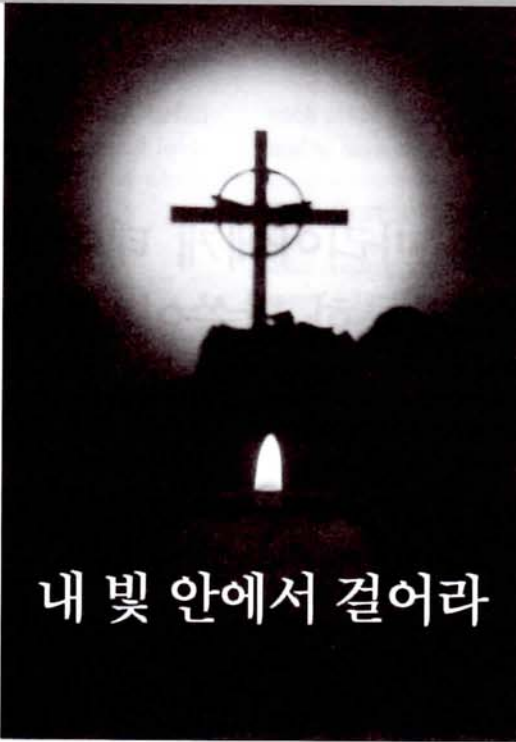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여라. 교회는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인 나의 거룩한 모성을 바라보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내 아들 예수께서 엄마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려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기셨듯이, 너희 역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천상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맡겨 주기 바란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되겠느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늘 이 엄마 마음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는 나날이 하느님을 더 멀리하고 있어서, 그분의 법에서 등을 돌리는 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 올해에는 어둠이 더욱 짙어질 것이고, 더욱 큰 재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내 교회도 한층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보속하라는 나의 가장 절실한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제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의 부류(部類)에 속하리라. 그렇게 '목자'들이 갈수록 빛을 덜 받게 되고, 그러니 양떼들은 불안과 분열, 오류와 배교의 길로 흩어져 가게 되리라.

교회의 목자들아, 내 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로 다시 돌아와 나오! 다시 뜨겁고 진지한 열정으로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준엄한 수호자가 되어 나오! 다시 예수님을 따라 갈바리아로 오르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맞추어 사느라고 마음을 흘지도 말아 나오!



내 빛 안에서 걸어라

스테파노 곱비신부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기도회 창시자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상과 교회에 암흑이 짙어질수록, 너희에게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해 티 없는 내 성심에서 나오는 빛은 그럴수록 광채를 더해갈 것이다. 너희는 이 빛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언제나 환하게 비추임을 받을 것이다. 나

를 따르는 너희 안에서 티없는 내 성심은 지금 이미 승리를 거두고 있다. 내 충실한 아들들의 영혼과 생활 속에 이 엄마 성심의 승리가 있는 것이다.

악이 어디에나 번져가고 있을 때 그들 내부에서는 선이 이긴다. 죄가 어디나 침투할 때 그들 내부에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긴다. 오류가 마음들을 점점 더 부패시키고 있지만, 그들만은 진리를 증언한다. 교회가 분열로 시달리면,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일치를 위해서 산다. 내 아들예수님의 대리자가 외롭게 홀로 버림받을수록, 그들은 그에게 더욱 큰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변함없는 위로자, 옹호자가 된다.

그렇다, 내 원수가 어디서나 이기고 있는 이 시대에, 티 없는 내 성심 역시 무척도 소중한 내 아들들의 삶 속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층 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시작되고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암흑이 모든 것을 뒤덮을수록 너희 가운데 있는 내 현존의 빛도 그만큼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새해를 맞도록 권한다. 내 아들 예수께서 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나도 그분과 함께 너희 가운데서 늘 그분과 너희 엄마로 있겠으니 말이다. **M**

(이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마리아 사제 운동과 다락방 기도회의 창시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룩한 말씀이시여

미카엘 홀(Michael F. Hull)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과 성모 신심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묶여있다.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불가분의 관계"(교회헌장, 53항)로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세기의 시 "아베 베룸"(Ave Verum)에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내용으로서, 1791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에 의해 불후의 종교 합창 명곡으로 남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와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의 제6장 "성찬의 여인이신 성모님의 학교"에서, 마리아가 "성체성사의 여인"임을 밝히고 있다. 거기에서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의미 깊은 유사점들이 지적된다.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했던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 19)라는 말씀은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 5)라고 하신 말씀에 비유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fiat, 루카 1, 38)"라고 했던 응답은 성체 성사 때 하는 '아멘'이라는 대답을 미리 예견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 자신이 주님의 부활 신비 이후에 성체를 받아 모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성모님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심장과 하나 되어 고통친 그 심장을 당신의 태중에 다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서 겪으신 일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회칙 56항). 우리도 역시 성체성사를 통해 십자가 아래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주님과 일치하는 것뿐 아니라, 통고의 성모님과도 일치하는 것이 된다. 요한은 "사랑을 받던 제자"로서, 최후의 만찬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인물이다. 거룩한 전승은 마리아와 요한 성인이 어떻게 예페소에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곳은 마리아가

승천하기까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장소이다. (루카 1장 참조).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일은 드물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함으로써 성체성사의 기적을 예시한 때와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당신 수난을 마감하던(요한 19, 25) 때를 제외하고, 마리아는 늘 눈에 띄지 않는 이면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늘 당신 아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마리아 신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로 향하는 신심이 옳은 것이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성인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두 가지 예를 보기만 해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다. 4세기, 암브로시오 성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리아 영성을 갖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마리아의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성은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1400년이 지난 후 요한 돈 보스코를 들 수 있다. 그는 폭풍이 일어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돛배가 두 개의 기둥에 정박해 있는 환시를 보았다. 두 개의 기둥은 성체성사와 복된 동정 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두 개중 큰 기둥은 성체성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믿는 이들의 구원"이라는 말이 적혀있었고, 좀더 작은 기둥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실로, 마리아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다. 신자들을 예수님과 성체성사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성모신심은 언제나 주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한다.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교회가 노래하는 것처럼 말이다.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룩한 말씀이시여..." (Ave verum corpus natum de maria Virgine...).

<2005년 11월 14일자 마리아 뉴스에서 발췌 >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기쁘게 하십시오

마더 데레사

겉으로 하찮고 의미 없게 보이는 일이라도 거부하면 안 된다. 사랑은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두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증오와 원한이 존재한다. 우리는 무력이나 혹은 대포와 같은 무기들로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단지 사랑과 평화의 표정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는 자기 공동체에 입회하려는 젊은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순명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더 이상 쓸모 없는 것들을 버리는 쓰레기 봉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없을까? 다음의 예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줘야겠어. 이걸 내게 소용이 없어. 난 이런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줄 옷이야!"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일까? 그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까? 진정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을 나누려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의 기쁨을 전해주려 한다면, 이 세상은 곧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나와 내 자매들은 아주 작은 일들을 기쁘게 실천한다. 아이들을 돕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환자들, 혹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작은 일을 한다. 나와 우리 자매들이 중요하고 큰 일을 하지 않으며, 단지 작고 하찮은 일을 하는 데에만 전념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매들이 단지 한 사람만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한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단 한



명의 죄인만을 위해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한번은 캘커타에 있는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에 한 무신론자가 찾아 왔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자매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을 데려왔다. (구더기들로 뒤덮인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하수구나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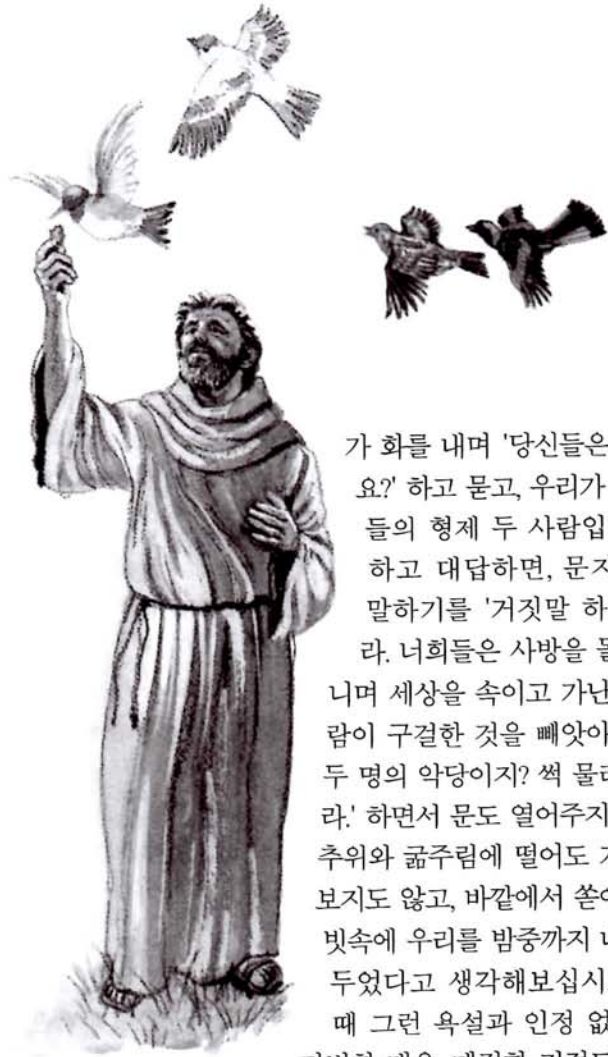
한 자매가 그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 그 자매는 자기가 아픈 사람을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지를 비롯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우연히 나 역시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

무신론자는 우리 자매를 지켜보며 서 있더니 마침내 말했다. "하느님을 믿지 않은 채 이곳에 왔습니다. 증오로 가득 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적인 형용사와 단어들을 인용하며 계속 말했다. 그의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제 저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이곳을 떠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손과 얼굴을 통해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저 불쌍한 환자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녀님, 이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는 전에 분명 하느님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가 무신론자였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M**

〈마더 데레사의 자서전에서 발췌〉

"참되고 완전한 기쁨"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어느 추운 겨울날, 성 프란치스코가 페루지아에서 레오 형제와 함께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가던 중 조금 앞서 가던 레오 형제를 불렀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성덕과 감화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조금 더 가다가, "레오 형제여, 작은 형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꼽추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도 살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조금 더 가다가, "레오 형제여, 만일 작은 형제가 모든 나라의 말과 온갖 지식이 더하여 미래의 일 뿐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꿰뚫어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또 좀 더 가다가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어린 양 레오 형제여, 만일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와 약초의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보물을 다 찾아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돌,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해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좀 더 걸어가다가 다시,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전교에 이주 능하여 이교도 불신자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 들인다 하더라도 잘 기록해 두시오.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십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레오 형제는 몹시 놀라, "사부님, 그렇다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 보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얼고, 진창에 빠져서 물결이 형편없이 되고, 배고파 기진맥진한 누추한 몸으로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에 도착해 수도원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문지가

가 화를 내며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묻고,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 두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문지가 말하기를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두 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거라.'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쏟아지는 빗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 그런 욕설과 인정 없는 무자비한 대우, 매정한 거절도 우리

가 인내로써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애덕으로 '문지가 말한 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느님께서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문을 두드리자 문지가 더 화를 내며 튀어나와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근처에 있는 나환자 병원에나 찾아가거라! 여기서는 너희들을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겠다!' 하고 소리치며 문을 닫아 걸을 때, 우리가 만약 애덕의 숭고한 정신에서 솟아나는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아들인다면, 레오 형제여! 바로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제

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족들아, 어디 혼 좀 나빠라' 하고 고향을 치며 웅이가 가득 배인 몽둥이를 들고 나와 수도복의 모자를 잡아 쥐고는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쳐, 눈 속에 굴리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자, 이제 무엇이 완전한 기쁨인지 결론을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놀

러 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물들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1코린도 4, 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 6, 14)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M**

(lbjk.brothers.or.kr에서 발췌)

인간의 한계

어떤 마을의 깊은 산속에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단식과 고행을 수행하며 지내는 수도자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수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의 깊은 영성에 감탄하면서 교회로 돌아갔다. 이것을 지켜보던 마귀들은 그 수도자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한

어린 마귀가 그 수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귀에 속삭였다. "자, 저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도 저 권력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도자는 눈을 감은 채 "공중을 날아 다니는 새들을 보라."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귀는 다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행복한 가정을 보여 주었다. "아름다운 저 여인을 보세요. 당신도 저런 여인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 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수도자는 "인생은 허무한 것..." 이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저 가엾은 영혼들을 보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 영성이 깊은 수도자예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훨씬 좋지 않을 까요?" 수도자는 겸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마귀는 마치 깊은 탈혼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평화로운 그 수도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포

기 하고 돌아 섰다. 곁에서 지켜보던 나이 많은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볼까?" 하더니 그 수도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갑자기 그 수도자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벌떡 일어서며 고향을 질렀다. "뭐라고! 안 돼! 그 사람은 아니라구!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야!" 그 수도자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그 평화는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다. 어린 마귀가 놀

라서 나이 많은 마귀에게 와서 물어 보았다. "아니 뭐라고 하셨길래 둘 같이 굳은 믿음으로 꿈쩍도 하지 않던 저 수도자가 저렇게 됐나요?" 나이 많은 마귀는 이렇게 말했다. "간단해. 나는 그 사람에게 자네 친구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고 말했을 뿐이야.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되지. 그러나 잊지 말게. 그 자부심의 곁에는 항상 자만과 교만이라는 함정이 따라 다니지. 그것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M**

딸을 성당으로 보낸 무당 엄마

김봉기 (안성 공도성당 주임신부)

12월 셋째 주 대림 제4주일 강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 39-45)

우리는 성모송을 바칠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방문을 받고 외쳤던 찬사 그대로를 성모님께 기도 드린다.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구세주를 잉태하신 성모님은 지극한 찬미를 받으실 만하다. 성모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천주교 신앙을 찾은 이들을 가끔 본다. 악마의 간교한 유혹과 무시무시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세례성사를 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다.

우리 성당의 한 자매는 굶을 하는 무당의 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에게 신 내림의 기운이 있자 본인도 놀랐지만 무당인 어머니가 더 놀랐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무당인 것을 늘 한스럽고 고통스러워했다. 설악신이라는 어둠의 위협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그 어머니는 자식마저 무당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며, 딸에게는 천주교 신앙만이 악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무당이 천주교 신앙을 전파했다니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머니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설픈 거부해서는 소용이 없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딸에게 간곡히 말했다.

그날부터 자매는 자발적으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당에 나가려 하면 전날부터 난데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성당이 그리 멀지 않은 데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평상시보다 걷는 것이 수 십 배 힘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성당 입구에 들어서려 하면 마치 발이 갓 벌에 빠진 것처럼 땅에 들러붙어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고 성당에 나가려고 마음먹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이유도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매는 쏟아지는 눈물과 온갖 고통을 견디어 내며 한 번도 빠짐없이 성당에 나와 교리를 받았고 온갖 유혹을 끝까지 참아내며 세례성사를 받았다. 마귀들의 괴롭힘은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에 주교님께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야 자매는 마귀들의 괴롭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며칠만 있으면 주님의 성탄을 맞는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 소식은 온 세상을 기쁨으로 넘치게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구세주로 오시는 강생의 신비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탄의 세계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사탄이 군림하는 세상을 내던지고 즐겁게 그리스도의 미사에 참여하는 권고의 인사말이다. 이 고마운 인사말을 함께 나누며 이번 성탄절은 좀 더 거룩하게 지냈으면 한다.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허례허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선물 하도록 하자. **M**

<가톨릭다이제스트 2003년 12월호에서 발췌>



성탄 대 축일 당일에는 밤 미사, 새벽미사, 낮 미사라는 세 대의 미사가 있다. 다른 축일과 달리 세 대의 미사가 있는 것은 교황청 전례에 기원을 둔 것으로 로마의 여러 교회에서 행해지던 지역 예배와 관련이 있다. 원래 성 레오 대 교황(+461) 시대까지도 성탄에는 베드로 대성당에서 낮 미사 한 대만 드렸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인정한 에페소 공의회(431) 이후 이를 기념하여 로마의 에스퀼리노 언덕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건설하였다. 그 다음 세기에 사람들은 로마에 베들레헴의 구유유물을 모시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 대성당' 곁에 구유경당을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 대 축일 때 이 경당에서 베들레헴에서 행해지는 것과 비슷한 밤 전례를 지내기를 열망했다. 바로 이것이 성탄 밤 미사의 기원이다.

성탄 대 축일에는 왜 세 대의 미사가 있나?



정 의철 신부님
가톨릭 신학대학 학장

이 축일은 이 성당 곁에 있는 왕궁에 살던 비잔틴 권력자들이 드리던 것이었다. 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황은 성탄미사를 드리러 '성베드로 대성당'에 가기 전에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에 들러 성녀를 기리는 미사를 드렸다.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에서 계속 미사를 드리던 중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교황은 그 성당의 후보 성녀를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미사 때 예수 탄생에 관한 기도문들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탄 새벽미사이다.

이리하여 성탄 대 축일 밤에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구유경당에서, 새벽에는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에서, 낮에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전례를 거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11세기에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의 전례가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이로써 '성모 마리아 대성당'은 온전히 성탄 대성당이 되었다. 교황청의 전례서들이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또한 칼 대제가 이 전례서들을 자기 왕국에서 사용함에 따라 세 대의 성탄미사는 전 서방교회에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을 따라 성탄 대 축일에 밤 미사, 새벽미사, 낮 미사 세 대를 드리고 있다. **M**

<생활성서 제 160호 1996년 12월호에서 발췌>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소서.

제 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묵상 :

코린도 전서 9, 22 :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오 8, 16-17 :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묵상 기도: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이렇게 넘어지셔야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하여 이 수난을 원하셨습니까?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어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간적 고통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갖 인간적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찬미와 감사,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얽매어, 오직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번역 / 김훈 울리아노

믿음, 사랑, 희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으며, 제게 맡겨진 십자가가 싫어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진 그들이 십자가 밑에 쓰러져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저는 무관심했습니다. 목석같은 저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바로 잡아 결심합니다. 앞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로 위로하며 그들이 고통에서 일어서는 것을 도우려 하니 제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기력이 쇠진해 십자가의 무게에 눌러 넘어지면서도 아버지께 "이제 더는 견디기 어려워 제 십자가를 그만 지겠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사의 힘을 다해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다시 일어나 걸으신 것처럼, 제게도 은총을 베풀어주시어 제가 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일 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예수님! 온 세상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십자가산을 올랐으며 당신의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이 제3처 앞에 섰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 모두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올바른 삶의 길을 걸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세상일에 얽매어 그 결심을 쉽게 잊어 버리고 악의 세력과 온갖 죄악에 맞서지 못해 넘어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라.

예수님! 넘어지고 허물어진 그들과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미움과 전쟁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미움과 전쟁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향락을 좇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정의와 사랑은 물질만능의 무게에 눌러 역시 그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재물에 정신 팔린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줄 모르며 아예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넘어져 십자가 밑에 쓰러져 계십니까? 재물과 향락을 좇아 정신없이 살다 멸망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시어 넘어진 저와 우리들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영광스런 부활을 통한 희망의 길을 걷게 해주소서.

성모님! 당신께선 십자가를 진 당신의 아들이 넘어졌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없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저 아들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옆에 계셨기에 예수님은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모님! 제가 삶에 지쳐 넘어질 때에 힘차게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시기 동안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은 지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청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1985. 5. 9)

성모님! 저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좌절에 부딪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또한 십자가 아래 넘어지신 당신 아드님의 구속공로를 통하여 저희 상처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아들, 예수님께 전구해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4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캐나다 : 이준용 콜베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신경남 신부(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장혜영, 오영숙,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탈북자들 ...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문위원

오늘은 주일이다. 하지만 미사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성무일도를 바치고 아침도 못 먹고 7시 30분 버스를 타기 위하여 정류장에서 연길 가는 버스표를 사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서 있는 사람들 중 겉으로 보기에든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북한 사람 모습의 아주머니 한 분과 청년 한 사람이 연길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불안한지 버스정류소 직원에게 계속 무엇을 묻고 있었다. 내가 먼저 아주머니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조선말로 인사를 했더니 몹시 반가워해서 내 이름을 말하고 서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 청년의 이름은 000이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용정의 고모댁을 찾아간다고 했고, 그 청년은 연길의 큰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다. 몇 마디 이야기 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면서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한국사람이지만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 조금 안심하는 눈치다. 아주머니는 용정의 고모댁에 10년 전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고모댁이 이사를 가서 지금은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 그 청년은 내 핸드폰으로 큰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고마워하였다. 버스를 탈 때 보니까 아주머니는 산에서 뜯은 산나물과 버섯 등을 곡식부대에 담아서 가지고 가고 있었다. 짐이 많았다. 굶주리고 고생한 모습이 역력한데... 고모네 집에 가지고 가려고 그 동안 먹지도 않고 얼마나 아끼고 모은 것들이었을까... 기운 센 현수와 바오로가 달려들어 자동차에 실어주었다. 아주머니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멀미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북한 여자분들 중에 자동차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허약하고 자동차를 타보지 못하였다는 증거이리라. 갈 때와 마찬가지로 오던 길에도 '안도시'에 이르러 똑 같은 조선족 식당 앞에 버스를 정차하고 점심을 먹게 하였다. 아주머니와 청년에게 점심을 사주려고 하

니까 그 아주머니는 멀미를 하여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고, 바오로와 현수도 덩달아 먹지 않겠다고 하여 청년과 나만 점심을 먹었다.

12시간을 오는 동안 꼬박 머리도 들지 못하고 멀미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참으로 측은했다. 용정에 도착하여 집을 찾아 주려고 하니 그 아주머니는 미안해서 그러는지 혼자 찾을 수 있다고 고집하셨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돈 100위안을 주며 조선말을 할 줄 아는 택시를 잡아 짐을 실어주고 택시 요금도 미리 주고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연길까지 왔다. 연길에 도착하여 그 청년의 큰아버지께 전화해서 위치를 알려주니 20여분 후 사촌 형님이라는 사람이 데리러 왔다. 기다리는 동안에 바오로가 담배 몇 갑을 사다 청년에게 주었다. 내 핏줄이 제일이라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청년과 그의 사촌 형과 헤어지고 나서 이번 3일간의 여행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뜻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날 밤중에 도착하여 연길의 엘리사벳 자매님 댁에서 묵고 지난 금요일부터 화룽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탈북 동포 한 분을 내일 아침 일찍 만나러 가기로 하였다. 연길-화룽간 도로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 비포장의 먼지와 자갈길을 가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래도 특하면 차가 빠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지난해 겨울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아진 편이다. 화룽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가서 서호에서 내려 탈북 동포가 숨어있는 쌍둥이네 집으로 갔다. 지난 금요일에 중국에 처음 온,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장백현에서 올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부탁해 놓았었다. **M**

다음호에 계속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장 빈센트 옹도 (가봉 오엠 교구장 주교)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동료와 함께 두 번째로 이곳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안에서 실천하며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메주고리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주기도, 미사, 성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예절이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이나 현존에 대하여 이렇게 며칠 머무는 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격증인 마리아와 성모님의 발현을 함께했던 그 은총의 시간 동안, 내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할 수는 단지 감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께로 회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회개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척박한 마을 메주고리예에 찾아와, 모두 기도라는 하나의 언어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사제로서 크게 감동합니다. 물론 이번 성모님의 발현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파티마와



루르드에서도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고, 이제는 모두가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체험들이 있었다면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 가봉에서 온 우리 모두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주고리예를 전할 것입

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만든 메주고리예의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부한 물질만능 시대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이고,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밝히십니다.

나는 많은 순례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관광을 위해 메주고리예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고통을 성모님께 맡기고 쉬면서 내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온 것임을 압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없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면서, 살아있고 따뜻하게 숨쉬는 교회를 다시 만나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체험한 것들이 현실에서는 강하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메주고리예를 떠난 뒤에도 이곳에서 체험한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M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



알란은 1985년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수상했던 운동선수이다. 어느 날, 알란의 막내 아들 브래드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하고 돌아 온 친구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었던 일, 비가 온 흔적도 없는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는 일 등등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브래드는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나? 늘 종교에 관해 말씀하시곤 했으니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아버지도 변화되실거야." 하고 말했다. 침통한 목소리로 호소하듯이 말하는 브래드는 부모들의 일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이야기는 곧 브래드의 부모인 알란과 엘레노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엘레노어가 이혼을 원했다. 그녀가 결혼 생활로 받은 상처는 이혼을 요구 한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알란은 이혼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기에 부인이 요구하는 이혼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가족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브래드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은 브래드의 간절한 권유로 그 해 추수 감사절에 온 가족이 메주고리를 방문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함께 십자가산과 발현 산을 오르기도 하고, 발현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들었으며, 미사와 저녁 예절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메주고리에 순례 마지막 날 갑자기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모든 가족들이 발현 목격 증인인 마리아 파블로비치의 집에 초대 받은 것이다. 알란의 가족들은 마리아 집의 식탁에 둘러 앉아 저마다 질문을 하였다. 그때

마다 마리아는 겸손하고 확신 있는 음성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통역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마리아의 음성은 매우 아름다웠다. 남편 알란의 멸시하는 듯한 심한 말투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 무시 받는 아픔을 받고 있는 엘레노어가 마리아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마리아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 동기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이혼은 가족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십니다."라고 대답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알란이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정말 천국, 지옥, 연옥을 보았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네, 우리 스스로가 천국, 연옥, 지옥을 선택한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쓸 수 없을 뿐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때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빛을 받아 하느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자신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지요. 성모님께서서는 그 진리의 빛 안에서 그 동안 살아온 선택의 결과로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 혹은 지옥이나 연옥인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엘레노어가 다시 물었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평화가 영원한 기쁨의 왕국에서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왜 우리가 봉사해야 하나요?" 브래드가 물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닮을 필요가 있지요."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알란은 자신 없는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은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알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도우라고 청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을 당신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해가 비추이고 있는 동안에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어둠이 오면 그분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의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청하십니다." 알란은 성경은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마리아야 침묵을 지키며 알란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런 말들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온화하고 평화로운 겸손은 나의 마음이고,
길이며 사랑이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믿어라.

개신교 신자였던 엘레노어는 마리아의 온화함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스쳐가는 몇 초의 짧은 순간 그녀는 남편과 젊은 시절에 나누었던 사랑의 부드러움을 다시 감지 할 수 있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리아가 영어를 전혀 구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 다음 해 아직도 별거 중이었던 알란과 엘레노어는 순례단과 함께 다시 메주고리예를 찾아왔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알란은 혼자서 십자가 산을 오르다가 십자가의 길 10처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여, 우리에게는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는 메주고리예의 하늘과 바위들 사이에 엎드려 마치 다섯 살짜리 고아처럼 한 없이 울었다.

엘레노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는 그녀에게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서 구해 낼 수 있는 것은 기적 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알란은 울면서 그 기적을 청했다. 그 때 그는 어떤 힘이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는 기쁨을 느끼며 갑자기 자신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자신만을 채우며 평생을 살아 왔던 알란은 어떻게 자신을 비워야 하는지 조차 몰랐다. 나는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느님이라고?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당신이 나를 알고 있습니까? 그는 변명과 독설을 퍼부으며 십자가산에 엎디어 어둠이 깃들기 때까지 움직일 줄 몰랐다. 두려움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그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그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은 살아 계시는군요. 내가 당신을 믿을 것을 결심하였으니, 저의 불신감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포용력을 제 안에 만들어 주소서." 그는 토마 사도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기를 원하며 내가 그분의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에는 알란도 무엇인가 확신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 오래 전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여, 생각하소서..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 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알란이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내기 전에 그의 코치와 함께 바치던 기도문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의 믿음만이 있을 뿐, 그 외의 것은 모두 허무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순간 이후로 그는 끊임 없이 이렇게 기도를 바쳤다.

"주님, 세상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눈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뛰는 심장을 제게 주소서."

그의 변화는 서서히 왔으나 모든 이들은 그의 부인이 기쁨에 차있는 것을 알았다. 이제 알란과 엘레노어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부인은 언제나 사랑을 주는 여인이었고 사랑을 찾고 있었던 알란은 그녀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M**

(Visions of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에서 발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어느 장애인의 수기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 난 검은 가방과 색 바랜 옷 ...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치고 낚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원 수강료를 낼 수 없었던 나는 학원에서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며 걷는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고 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언제나 앞날에 대한 희망이 싱싱한 생선처럼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통뒤통 걸어서 다니며 가을에 입던 훌잡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날, 나는 책 살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서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쳐 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이렇게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하게도 나보다 심한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

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일하시는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서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계셨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더는 엄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넘기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꼬옥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기념'이라고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 주고는 아이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보았다. 추위로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

그날 저녁, 우리 가족 셋은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눈물 때문에 국밥 한 그릇을 다 드시지 못하셨다. 그저 색 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짙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 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아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 산소에 가봐야겠다. 얼른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 몸이 아팠다. 그때 부리나케 달려 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잠시 뒤, 나는 흠뻑 젖은 교복을 털어 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이면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굵이굵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 준 엄마와 형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한 시간씩 큰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 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상자를 나르고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 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M

(위의 글은 10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중 하나이다. 그 후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항공 공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국내의 굴지 기업으로부터 생활비 전액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한다.-퍼온 글)



하느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기도

하느님,
하느님은 내가 무얼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걸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 수 -

하느님,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가 한 사람씩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내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요?
- 미셸 -

하느님,
제 이름은 로버트인데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느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느님은 저에게 동생을
주실 수 있죠?
하느님, 화이팅!
- 로버트 -

하느님,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하신 건가요?
- 스티븐 -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램프를
제게 주시면,
하느님이 갖고 싶어하시는 건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구요,
- 라파엘 -

사랑하는 하느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사랑을 담아서 데레사 -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여라

11월 순례자 이 미정 선교사

나에게 영육간에 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던 형부와 언니가 메주고리예로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쉽을 주시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메주고리예에 가면 말로만 듣던 십자가산에 올라가 실컷 울고 싶다는 생각과 실컷 기도하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문제만을 끌어안고 메주고리예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된 오 수산나, 테레사 언니들은 내가 개신교 신자인 것을 알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주었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와 닿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성 베드로 성당과 성 요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그리고 로마 시대 순교자들의 지하 무덤이 있는 카타콤베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성경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성인들의 발자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의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메주고리예로 향하였습니다.

메주고리예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금 내가 소식을 통해서 보던 그 메주고리예로 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개신교인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함께 동행하게 된 남 마르따 자매님이 성모님이 10월 달에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여라."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이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웬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 묵상하였습니다. 오 테레사 언니는 자연스럽게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기도문을 보고 읽으면서 묵주기도와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 곳에 순례를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천주교인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에 나도 영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함께 순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발현산과 십자가 산을 오를 때는 그 곳에 모셔진 예수님과 십자가를 만지며 울고 회개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마마 미셀 할머니와 쟈마 할머니께서 이번 순례가 당신들의 일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면 힘드신 몸으로 십자가 산을 끝까지 올라 정상에 오르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 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그리고 낮에도 시간이 되면 발현산과 십자가산을 오르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심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11월이 우기라고 들었는데 비는 한번도 오지 않았고, 맑고 따뜻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로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야고보 성당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5시에 묵주기도, 6시에 미사를 드린 후 7시부터 시작하는 성 시간이나 십자가 경배를 포함해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성모님이 원하셨다는 이 저녁 예절은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와서 기다리고 그 후에도 큰 성당을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요조 신부님의 피정 장소인 성 가정 고아원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까이 왔을 때

화창한 날씨의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옆에 무지개가 생기더니 그 동안 말로만 들었던 태양이 성체로 변하는 기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 여기가 성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정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나는 처음부터 대 침묵이라는 것도 어색하고, 요조 신부님도 조금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2층 숙소로 들어가는 곳에 소화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고 시절 소화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과 그 분에 관한 책을 갖고 다니며 자주 읽었는데, 정말이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아침에 묵주기도를 드릴 때, 환희의 신비 5단을 묵상하시는 요조 신부님의 말씀을 듣던 중, 나는 힘든 현실과 문제에 떠밀려가듯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체할 수 없 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강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나의 무디어지고 형식적이 된 신앙을 깨우쳐 주시며 영성을 자극하였습니다. 때로는 예리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치유와 기도를 심어 주셨습니다. 모두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아빠께" 쓴 편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읽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개신교 신자로서 미사나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지만, 요조 신부님은 성체와 제대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또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주기도 시간마다, 강의 시간마다 너무 가슴에 와 닿은 신부님의 말씀과 재미있고 적절하게 들려주신 예화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요조 신부님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시노레....."

피정이 끝나갈수록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주시고자 하는 신부님의 사랑과 말씀이 더 간절해져서 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기도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장님이 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곳에서 5천 5백 명의 전쟁고아들을 돌보시는 신부님께서 건강하시길,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시로키 브리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요조 신부님께 파견 안수를 받은 후, 우리는 프란치스코 회 수도자들에게 십자기를 바닥에 던지며 배교를 강요하던 공산당원들 앞에서 오히려 십자기를 부동켜 안자 그 수도자들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살라 죽인 순교자들 돌아보았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진 이곳이 지금은 수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그 분들의 믿음을 배우는 성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티할리나 성당에서는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성모님을 직접 보면서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천주교에서 성모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에 증인이 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오면서 체나콜로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로마 거리에서 마약에 중독이 된 한 청년이 몸을 가누지도 못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이곳에서 마약 중독자였던 미게일 청년의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형제들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창설자이신 엘비라 수녀님은 기

도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며, 또 용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마약 중독자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함으로써 같은 처지에 있었던 자신들의 체험으로 그들이 마약 금단 현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건강한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현대 문명과 문화에 가리워진 젊은이들의 잠재된 능력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순례단원끼리 조를 나누어서 함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저녁에는 조별로 대표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야고보 성당에서 성시간에 음악을 봉사하는 분들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촛불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들려주는 음악에 맞추어서 재미있는 댄싱도 하며 메주고리예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을 감상하며 드브로브닉에 도착해서 1700년 동안 부패되지 않고 있는 실바노 성인의 시신을 보고 또 최초의 뼈에따 상이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순례 기간 동안에 하루에 세 번씩 공동으로 기도 드리고 두 번씩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목주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는 혼자서도 목주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포옹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날이 갈수록 진심으로 평화를 빌어주시는 마음과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갔던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치유되고, 목주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의 얼굴이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는데 많이 밝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여행한 분들의 얼굴이 많이 변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례 일정을 준비하고 우리를 인솔해 주시던 그레고리오 형부와 미카엘라 언니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것을 보면서 순례단원들을 통해서 성모님을 만난다고 하셨던 형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개구장이 소년 같은 웃음 소리로 분위기를 신선하게 해주시는 윤신부님은 순례기간 중 제일 바쁘셨습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윤신부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은 모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얼굴이 환

해졌습니다. 순례를 떠나 올 때는 아이들과 2주 동안 어떻게 떨어져 지내나 하며 공항에서도 울었는데, 메주고리예에서는 어느새 집에 대한 걱정도 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순례 기간 중에 개신교 교인으로서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체와 목주기도,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천주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피정할 때, 개신교인 제가 마음에 겪을 갈등을 아시고 편지를 보내주셨던 테레사씨, 너무 재미있고 따뜻한 수산나 언니와 테레사 언니, 5년 만에 고해성사를 드리고 온 날 밤에 잠자던 나를 깨워 실컷 울게 하고 자기만 혼자 잠들어버린 룸메이트 엘리자벳, 내가 어느 때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고 사탕 하나라도 챙겨주던 헬레나 언니와 안젤라 언니.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쁜 마리아 언니, 개성이 듬뿍 담겨있는 미카엘라. 소녀같은 글라라씨, 멋있는 모니카씨.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 마리아씨. 우리 팀 조장이지만 할머니들의 든든한 보디가드이셨던 요한씨와 순수 40대만 모인 우리 3조! 그리고 목주기도를 드리던 여러분들의 모습과 성모송을 드리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웬지 메주고리예의 테두리만 보고 온 듯해서, 다른 분들이 왜 메주고리예를 몇 번씩 오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를 오래 동안 기다리시며 이런 기회를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고집 센 처제를 항상 이해하고 섬겨주신 형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



이 체험기는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개신교의 이미정 선교사님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와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원본에 충실하기 위하여 호칭 및 대명사는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 편집주 -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신 사랑하는 나의 성모님께



내가 당신을 모를 때도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나의 어머니...
내가 힘들었을 때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게 나를 도와 주신 성모님,
오늘 세례를 받기까지
여러 장애물을 넘게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부르지 않았지만
항상 내 옆에 계셨던 어머니...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라는 희생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 보다 더 아파하시며
몰래 나를 치유하고 계셨던 어머니,
마음이 힘들 때는 그 누구보다 친절하게
다가온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몰랐었지만
이제는 내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신
나의 어머니이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 사랑은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품에 안긴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모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마한 믿음이
오늘의 큰 믿음으로 있기까지 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성모님께서 제 마음에 새로운 씨를 뿌려준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행복에 넘쳤습니다.
매일 매일 묵주기도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내 뒤통까지 기도해 주신
나의 성모님께 감사와 행복이 넘침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셔야 했는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셨지요...

어머니,
당신을 사랑 할 수록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귀하게 제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만 싶은
어머니의 그 고통과 희생...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입으신 당신의 상처가
너무나 크셔서 내 마음은 아프다 못해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제가 사람이기에 헤드릴 수 없는
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니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만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어두움과 슬픔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제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값진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저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몰랐을 때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사랑을 주신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지금 이 참된 행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앞으로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며
이 글을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바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M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드림

(위의 내용은 개신교를 다니던 학생이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쓴 편지입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지켜드린 요셉 성인처럼 살고 싶다고 영세명을 요셉으로 정했습니다. 이 학생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참된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메주고리에! 그 곳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 함께 살아 가게 될 것이다.

김요한 금구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나의 삶에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고 믿는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적어 놓으신 영적 일기장을 읽게 되었다. 그 일기를 읽으며 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움을 느꼈었다.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부터인가 왜 그런지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잔소리 같고, 몹시 듣기가 싫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유 없이 반항 하는 나의 손에 말 없이 목주를 꼭 쥐어 주셨다. 나는 목주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목주를 지니고 다니면 성모 어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 아마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그렇게 나를 지켜 준 것이었으리라.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에게 큰 오해를 하시고 대단히 화를 내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무작정 집을 나셨다. 갈 곳도 없이 집을 나서는 내 손에 어머니는 800 달러를 쥐어 주셨다. 나는 그 돈으로 아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에 200달러 짜리 작은 방을 얻어서 식품점이나 야채가게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며 살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이해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러나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힘을 냈다. 그렇게 4년을 지내오던중 나는 생활을 정리하고 평소에 어머니가 내게 바라시던 대로 사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 했다. 뉴욕 버팔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신부님의 추천서를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학교에서 지내는 생활은 참으로 평화로웠다. 나는 신학교의 공부를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더 배우게 되었지만 한

편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란 착각 속에 빠져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수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 하느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느님과 나와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제가 되는 것도 나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나는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던 정들었던 신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성실하고 열심한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사업도 순탄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자 어느새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며 살다 보니 다시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느님과 성모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형제님과 만남을 통하여 말씀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시간이 지나니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드리며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속은 항상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과거로 인해 내 자신이 항상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잘못 된 일들을 되돌아 보며 서로 용서 받고 용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척 어려웠다.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갖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나의 아내 헬렌과 큰 아이와 그레고리오 형제님을 통

해 성모님이 발현하고 계시는 메주고리예를 알게 되었다.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지만 나는 성모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데 왜 꼭 그곳을 갔다 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그곳을 갔다 와도 나에게도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시 집을 떠나 꼭 쉬다 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는 2005년 7월 27일 순례를 떠났다.

그러나 그런 내 마음과는 달리 첫 번째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후 나에게도 조금씩 내적인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내가 어렸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항상 나와 같이 해주던 손길이 바로 성모님이셨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동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났다.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여원 손을 꼭 잡아 드렸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전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더 늦기 전에 꼭 그분을 만나시고 믿으세요."하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주 보았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 보면서 문득 스쳐오는 생각과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한테 잘 못하고 묶여 있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를 용서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나니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에서 하루가 다르게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단념하고 있었던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제는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머니이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지난 11월, 요조 신부님과의 피정을 겸해서 두 번째로 찾아 간 메주고리예는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품 속에서 영육간에 꼭 쉬고 온, 은혜로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 할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마음은 너무나 기뻐다. 특히 요조 신부님

이 하루 세 번씩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피정은 미사의 전례 안에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슴 깊이 새겨 주었다. 그 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성모님과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다. 나만이 아니라 12박 13일 동안

함께 했던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골고루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성사 안의 신비 속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기쁨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 온 나는 이제서야 진실한 믿음과 기도, 사랑의 선물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배운 것 같다. 메주고리예는 나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갈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장소가 되었다.

성모님, 그 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많은 분들이 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만나보고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요조 신부님은 "이제 메주고리예는 더 이상 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메주고리예가 되어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메주고리예! 그 곳은 이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로서 나의 삶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M**



Monthly Message

Queen of Peace



Message of November 25, 2005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pray, pray, pray until prayer becomes life for you. Little children, at this time, in a special way, I pray before God to give you the gift of faith. Only in faith will you discover the joy of the gift of life that God has given you. Your heart will be joyful thinking of eternity. I am with you and love you with a tender lov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DITATION OF THE ROSARY

The Sorrowful Mysteries

Introductory Prayer:

My Jesus, Your coming to this world was wonderful because You were ready to suffer like all men. You were not spared from crosses, yet You were always ready to alleviate other people's pain to take crosses away to heal and to comfort. Now a special hour has come. Your personal Calvary is approaching, death is approaching inevitably. I do not want either to doze or to sleep, but to stay awake with You. Jesus, I wish my prayer could bring You comfort from brothers and sisters who suffer. I wish it could bring You joy and strength from them. Send me Your spirit that I may know how to pray that I may come closer to You. Amen.

First Sorrowful Mystery:

Jesus, You experienced sorrow and distres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You asked Your Father to let the bitter cup pass You by, but You added immediately, "Father, Your will be done." You who had refreshed many a sufferer found Yourself in suffering alone. There was nobody to help You. The Father could have, but You agreed to drink the bitter cup to the last drop. But it must have been all too bitter of an agony to make You sweat with blood. I believe that all the agony and all the suffering of the world was present in Your bloody sweat. Jesus, thank You for every drop of blood that ran with the sweat. I know that from that moment, all the agony of the world became an agony that redeems and an agony that can redeem. I pray to You, for the sake of Your sweat to look upon all those who are seeking the Father's will now. Help, also, those who have learned the Father's will, but are too weak to accept it. May all their agony be redeemed through a renewed acceptance of the Father's will.

Second Sorrowful Mystery:

Jesus, You were scourged at Pilate's court. I know what the custom was with scourging. They would tie the condemned person to a post, and then the scourgers would deal unmerciful lashes on the body of the condemned person. My Jesus, this act, too, takes my breath away. My heart freezes. However, You magnanimously forgave your scourgers all the blows with which they wounded You all over. Therefore, I pray to You to set free with Your scourges all those who do not want to do the Father's will

and who destroy themselves with scourges which befall them because they do not decide for forgiveness and love. Thank You for the example of love and forgiveness which manifested itself when they scourged You severely.

Third Sorrowful Mystery:

My Jesus, they crowned You with the crown of thorns after the scourging. They wrapped You in a scarlet military cloak and made a fool of You. Your friends, those who were near You were far away. When hatred starts forging evil plans, then it is not likely to stop. It was not enough for them to have scourged You so murderously, and now they go on mocking You and crowning You with the crown of thorns. But this time, too, hatred and evil were surprised before You. You remained calm in all Your suffering. They saw in Your behavior that You understood even those who treated You like that. And even more, that You loved them and that You did not condemn them. But their wickedness had no limits. That is what happens when evil has affected a man, a family, and a community. It never stops destroying. Jesus, look upon all the offended, the humiliated, the scorned, and the rejected. Redeem them with Your crown of thorns from under the grindstone of tortures and oppressors. Cleanse their heart of every hatred. Do not let them plan revenge and return evil with evil. Jesus, in Your name, let forgiveness spread.

Fourth Sorrowful Mystery:

Jesus, You carried Your cross to Calvary. All I know about Your Way of the Cross is that it was horrifying. However, in a sea of pain and suffering, You had three precious drops of consolation: the meeting with Your Mother, Veronica's handkerchief, and the brief hand in carrying the cross from Simon the Cyrenean. You certainly appreciated these drops of consolation and rewarded them with consolation and strength. But You may well have wondered at that moment, "Where are the rest whom I have helped so unselfishly?" And I know, again, You understood them too, and presented Your cross for them as well. Help me, Jesus, to learn something; to be sensitive to other people's pain, to know how to give comfort even in the most difficult moments, that I may never find it hard to shoulder the burden of others. I especially ask You to help us not to aggravate crosses and sufferings for



each other. For it is the Father's will for us all to be happy and to love each other even in hard times.

Fifth Sorrowful Mystery:

You commended Your spirit to the Father and died on the cross after You had taken the cup given to You by the Father, because You were ready to accept it. I remain speechless here. I shall remain silent before Your cross. There is nothing to be said here but only heave a sigh: O, is it possible that human wickedness can go so far? Is the love of God for us so strong that the Father did not even spare His own Son, but instead allowed Him to be crucified for our salvation? Is the Father's forgiving love in His Son so great that He pardoned everyone immediately? My Jesus, thank You for having done all this for us. Do teach us to love and to forgive. Strengthen all those who, for the lack of their own love, cannot forgive, and who destroy each other in hatred. Help us all to accept the Father's will as You did, because it is the only way of salvation. We pray to You for the dying. Give them strength to commend their spirits to the Father in peace. Take them into Your peace, O Lord Jesus.

- To be continued

* * * * *

DEVOTION TO MARY BREAKING BOUNDARIES

More Protestants taking interest in Jesus' mother

They're wearing "Mary Is My Homegirl" T-shirts and bracelets, and not all of them are Roman Catholic.

Once, mainly a devotional figure for Catholics, Mary and her role as a woman of God, now is being studied by Anglicans and other Christian denominations.

"Mary is my friend ... for me, she's the ultimate example of a woman who said 'yes' to God," said Betsy Biega, parish administrator at St. Martin's in the Fields Episcopal Church off Clemson Avenue in Columbia.

In May, leaders of the Anglican and Roman Catholic churches released a study that encouraged members of both churches to regard Mary as a figure of

devotion, even though there remains some theological disagreement about aspects of Mary and her role in the church. "Mary Is My Homegirl" T-shirts made by Teenage Millionaire, a California-based clothing company, have become one of the company's biggest sellers nationwide and recently got a mention on "The Gilmore Girls," a humorous TV drama about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e shirt sports a figure of the Virgin Mary, some made in gold or silver lame on a black background.

"In the past, there have been reservations about what some people see as 'Mary-olatry,' or seeming to worship Mary," said the Rev. James Lyon, pastor of Good Shepherd Episcopal Church in downtown Columbia.

"The new position is that there's nothing wrong with appropriate devotion. The key is to keep in mind that Mary can be seen as someone who points the way toward her son, Jesus Christ."

None of this surprises members of the Protestant and Catholic communities in Columbia who see Mary as an important spiritual figure for today's Christians.



"Mary is an intercessor for the people of God, a model of submission and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for the whole Christian church," Lyon said.

Lyon's church recites the rosary, a Mary-related devotional prayer, once a week, and for several years it has taken part in a group recitation of the rosary with members of St. Joseph Catholic Church on Devine Street.

"Mary Is My Homegirl" T-shirts can't be found for sale in Columbia stores, but Megan Shealy, manager of St. Francis Catholic Shop in Irmo, is thinking about ordering them. She wears a "Mary Is My Homegirl" bracelet she found at a Spencer's gift store, and she thinks the items are a great idea for young Catholics and others.

"Items like this are becoming a new method of communication for young people who want to share their beliefs," Shealy said. She said a similar bracelet, "Jesus is My Homie," is hard to keep on the shelves at the St. Francis store.

Lyon thinks "nothing but good" can come from shirts and other items that allow young Christians to express an

interest in Mary.

"If a youngster gets excited about what Mary can say to him or her, I think that only helps direct them toward Jesus," he said.

Some Protestant churches, especially Episcopal and United Methodist, in recent years have offered Bible studies and classes that focus on the Virgin Mary as a model for Christian women.

Biega, who regularly uses the rosary as a means of devotion, thinks more Protestants are becoming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Mary because she offers a symbol of what women can become through the love of God.

"What attracts women is the nee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our Mother, Mary as the child who said 'yes' to God."

- Nov. 3, 2005 by Christina Lee Knauss/Staff Writer/from North Carolina's Home Page

Devotion to Mary growing among Protestants in England

Devotion to Mary is growing among Anglicans, Fr. Noel Wynn told the New York Times. Fr. Wynn is the director of the Roman Catholic Marian shrine in Walsingham, England known as "England's Nazareth."

Walsingham is home to two Marian shrines-one Catholic and the other Anglican-located at opposite sides of the town.

Tradition says the first shrine was founded in 1061, when Richeldis de Faverches, a Saxon noblewoman, had a vision of the Virgin Mary, who showed her the house in Nazareth where the Angel Gabriel announced the birth of Jesus. Mary then instructed the lady to build a replica.

Since then, Walsingham has been an important pilgrimage site in England, whose emphasis is not healing, but on one's lifelong Christian journey.

In 1538, what is now the Protestant shrine was destroyed as part of the Reformation under King Henry VIII. It was rebuilt in 1931, with accommodations for 218 people.

The Catholic shrine is built around the Slipper Chapel, so named because historically it was there that people removed their shoes and walked the Holy Mile, the last mile of the pilgrimage. Some still walk it, reported the New York Times. This shrine has accommodations for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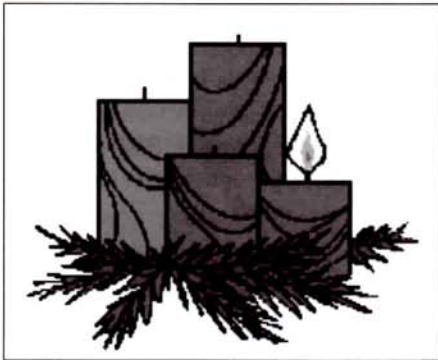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he number of Protestant

pilgrims visiting the Marian shrine and staying overnight has risen since 1999, from 10,000 to 12,000.

Protestant worshippers in Walsingham often belong to the Anglo-Catholic tradition, which accords greater reverence to the Virgin Mary than other Protestant sects, and uses the bells and incense like in the Roman Catholic liturgy.

The shrines also appeal to other Christians, and the Orthodox and Methodist churches in the town are indicative of this.

- London, Nov. 10, 2005, Catholic news agency



The word Advent is from the Latin *adventus* for "coming" and is associated with the four weeks of preparation for Christmas. Advent always contains four **Sundays**, beginning on the

Sunday nearest the feast of St. Andrew the Apostle, (November 30) and continuing until December 24. It blends together a penitential spirit, very similar to Lent, a liturgical theme of preparation for the Second and Final Coming of the Lord, called the *Parousia*, and a joyful theme of getting ready for the Bethlehem event.

The traditional color of Advent is purple or violet which symbolizes the penitential spirit. Religious traditions associated with Advent express all these themes.

Since the 900s Advent has been considered the beginning of the Church year. This does not mean that Advent is the most important time of the year. Easter has always had this honor.

POPE BEGINS LITURGICAL YEAR WITH CALL TO HOLINESS

VATICAN CITY, NOV. 27, 2005 (Zenit.org).- Presiding over vespers of the First Sunday of Advent, Benedict XVI began the new liturgical year with an appeal to holiness.

In a spontaneous homily in St. Peter's Basilica on Saturday, the Pope commented on 1 Thessalonians 5:23-24.

In the text, St. Paul says to his faithful: "May the God of

soul and body be kept sound an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H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The first verse "expresses the apostle's hope for the community; the second offers, so to speak, the guarantee of its fulfillment," explained the Holy Father.

"The hope is that each one will be sanctified by God and be kept without stain in his whole person -- 'spirit, soul and body' -- for the final coming of the Lord Jesus; the guarantee that this can take place is offered by the faithfulness of God himself, who will not fail to lead to fulfillment the work begun in believers," continued the Pope.

According to the Bishop of Rome, the hope expressed by the apostle "contains a fundamental truth, which he tries to inculcate in the faithful of the community he had founded, and which we can summarize thus: God calls us to communion with Himself, which will be fully realized with the return of Christ, and He, Himself commits Himself to make His faithful arrive prepared at this final and decisive encounter."

"The future is, so to speak, contained in the present or, better still, in the presence of God Himself, of His unbreakable love, which does not leave us alone, which does not abandon us not even for an instant, as a father and mother never cease to follow their own children on the path of their growth," said the Pontiff in his homily delivered without notes.

"Before Christ who comes, man feels questioned in his whole being, which the apostle summarizes in the terms 'spirit, soul and body,' thus indicating the whole person, as an articulated unity of somatic, psychic and spiritual dimension," he said.

"Sanctification is a gift of God and His initiative, but the human being is called to respond with his whole being, without excluding anything," stated the Successor of the Apostle Peter.

"Precisely the Holy Spirit," he said, "who formed Jesus, perfect man, in Mary's womb, leads God's admirable plan to fulfillment in the human person, transforming above all the heart and, from this center, all the rest."

"In this way, in each person is summarized the whole work of creation and redemption that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realizes from the beginning until the end of the cosmos and of history," said the Pope.

"And, just as at the center of the history of humanity is the coming of Christ and at the end His glorious return, so each personal existence is called to encounter Him--in a

mysterious and manifold way--during the earthly pilgrimage to meet 'in Him' at the moment of His return," he said.

The Holy Father concluded: "May Mary, most holy, faithful Virgin, guide us to make of this time of Advent and of all of the new liturgical year a path of genuine sanctification, for the praise and glory of God the Father, Son, and Spirit."
- 27-November-2005 -- ZENIT.org News Agency

CONVERSION EQUALS DECISION FOR HOLINESS



Christmas is a special occasion for conversion, and Our Lady invites us to prepare ourselves, and stresses in particular to prepare our hearts, so we don't get lost in the rest. Our Mother assumes the role of John the Baptist, who preached: "Repent, for God's Kingdom is at hand" (Mt 3:2), and ; prepare the way of the Lord, by straightening the paths, so that He can come to you. This means to crush the mountains of our pride and vanity and fill in the abysses of our sins.

The first step for conversion is confession. Even the crowds who went to the Baptist confessed their sins by "*being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as they acknowledged their sins*" (Mt 3:6). And he asked for worthy fruits of conversion; that is, to change one's ways, and works to prove it. For Our Lady, these fruits are working at holiness. There is no sincere response to our penitence and to God's forgiveness if not the decision to follow God's way.

Our Lady speaks clearly: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As God's children, we must renounce Satan and his works! With the frequent use of the word "holiness", Mary is helping u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word which can rouse fear amongst Christians, too. For our modern-day culture where man seeks perfection outside God's plan, holiness is something abstract and abnormal, an exaggeration of past times.

Instead, holiness is the natural development of divine life of which we are part; it is the search of everything which is pleasing to God; it is a pure life where there is no room for sin. Holiness is life's only aim when you have come to know God; so much so that God commanded it right from the Old Testament: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Lev 19:2). And in the New Testament Jesus says: You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t 5:48). St. Paul says: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holiness: your sanctification" (1 Thess 4:3), that is, develop the seeds of holiness which you receive through the sacraments: we have been sanctified as we are called to be saints (1 Cor 1:2). God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Eph 1:4). "At the end of one's life there will be only one sad thing; and that is to not have been holy," said Edith Stein. Our Lady stresses the need of this decision for holiness: decide today and not tomorrow, because this is the way of salvation, the way to paradise. Mary says it clearly.

With every Christmas, Jesus offers Himself again, that He may live in us, in our flesh, so that He can heal it, sanctify it, and make it divine. Thus, to our poor flesh He gives the strength so it can live as He does. This is the real meaning of incarnation and John says it clearly: "... whoever does not acknowledge Jesus as coming in the flesh does not belong to God. It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1 Jn 4:3 and 2 Jn 7)

The joy of Jesus's presence in us will console us for every trial, and His light will surely be in our eyes. Thus, our life will have the taste of heaven, and it will be a true witness for all those we meet. Of course, the way of holiness is not an easy one, and falls are natural, but Mary ensures us her help. She invites us to place our decision in her hands: "decide with me for holiness". She begs us to trust her completely: "be mine", and, once again, s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ayer taken seriously: "... pray, pray, pray, Each day we must pray, as though we had never prayed, till our life becomes prayer".

- from ECHO/ Fr. Angelo

Annual Apparition to Jakov on December 25th 2004

At the last daily apparition to Jakov Colo on September 12th, 1998, Our Lady told him that henceforth he would have one apparition a year, every December 25th, on Christmas Day. This is also how it was this year. The



apparition began at 2:30 pm and lasted 7 minutes. Our Lady gave the following message:

"Dear children! Today, on a day of grace, with little Jesus in my arms, in a special way I call you to open your hearts and to start to pray. Little children, ask Jesus to be born in each of your hearts and to begin to rule in your lives. Pray to Him for the grace to be able to recognize Him always and in every person. Little children, ask Jesus for love, because only with God's love can you love God and all people. I carry you all in my heart and give you my Motherly blessing."

VISIT OF AN EPARCH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Mgr. Issam John Darwish, BSO, DD., eparch of the Melchite Catholic Church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was on a private pilgrimage in Medjugorje from September 12 to 19, 2005. In Medjugorje, he celebrated the 33rd anniversary of his priestly ordination. Before becoming bishop for the Melchit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1996, he worked in Lebanon in favour of abandoned children. Here are his impressions:

"Last Sunday, I was in Castel Gandolfo with my group of pilgrims, and we prayed the Angelus with the Pope. After the Angelus, as it was arranged before, I went to visit the Holy Father. The program of this visit was specified in advance. At the end of our conversation, I asked the Holy Father to give his blessing to the group of pilgrims, which was going to Medjugorje the following day. If you have ever met the Pope, you know that he has a splendid smile. He smiled with great kindness and he said: 'May God watch over you and bless you'.

The devotion towards the Virgin Mary is very widespread among our parishioners. They came to me and they asked me to accompany them this year to Medjugorje. I have had much work, but I accepted immediately. Then, I thought that I should have perhaps said 'no', but now I am glad to

have come. With the group, we contemplate each day, the life of Mary from the beginning to the cross. For me, it is a Marian retreat. I wanted to transmit to the faithful what our Byzantine Church is saying on Mary. All the prayers were directed towards a better knowledge of the role of Mary in our life. For me and for the whole group, the coming here is a blessing. We see Mary as a person who leads us to Jess. She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life. She is leading us to Jesus and she is deepening our faith.

The number of pilgrims coming to Medjugorje is a sign of God. The atmosphere of prayer spread by the priests from here is very deep. I believe that Medjugorje is a place of expectation, a place that is questioning our faith: how to deepen our faith? The prayer in front of the cross, adoration, the Eucharist - all this gives to the pilgrims a deep spirituality. It is a place of prayer.

I think that the role of the priest who accompanies the pilgrim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bring fruits, the pilgrims must be accompanied by a priest. His role is to help them to go further than seeking signs. I said to my pilgrims that we have already the signs: it is the Blessed Sacrament of the altar and other sacraments. All the sacraments should be lived: the sacrament of Penance, the Eucharist, and their spiritual role should be discovered. The Mother of God speaks to each one of us. It is not necessary to see her. We can see her with our interior eyes, the eyes of faith.

I think that the priests from here are giving to the pilgrims a very good orientation, but the priests who accompany the pilgrim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teaching of the Church. The priests from here could give the priests who accompany the pilgrims some directions: how to live the interior conversion in a deeper way. And let us allow the Lord to act in the hearts of the faithful! Some people need 'feelings', others don't. This is Christian life.

The messages of Medjugorje are messages of the Gospel. I do not see anything else. Eucharist, Penance, prayer... it is the Gospel. The apparitions? I do not know. I do not have any clear idea, but I think that God can do all that He wants





The Way of The Cross by Fr. Slavko

I will write a booklet on my impressions of Medjugorje. I will encourage the faithful to come to make this pilgrimage, to live a few days of prayer and interior conversion. I will encourage them. I also will encourage the priests to come with them.

I have a desire: that Medjugorje opens to the environment, to the Orthodox and to the Moslems, that Medjugorje becomes a centre of dialogue with them."

- From Medjugorje bulletin 215

THIRD STATION

JESUS, YOU FALL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CROSS

The weight of the cross is terrible. After only a few steps, Jesus falls. He has already suffered so much. The unmerciful beatings have weakened Him. The road is steep and difficult. Jesus tries to push Himself up with His elbows. It appears as if He wants to use this fall to rest a little, but He is being pulled by His robes to continue walking. Mary's suffering is more apparent. Her Son becomes the bridge between the Father and the people by the cross He is carrying

From the Bible: Therefore I am content with the weakness, with mistreatment, with distress, with persecutions and difficulties for the sake of Christ; for when I am powerless, it is then that I am strong. (2 Cor 12:10)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Jesus, as I see You falling, I am aware that You are not completely on the ground. You remain in that position as a bridge, the bond between man and the Father, a bridge that will overcome all obstacles, reconcile all who are divided, and heal all who are wounded. You are the High Priest, the builder of a new road, leading us to that union with the Father. Thank You for accepting the cross. Through it, You opened a new road for me.

O Jesus, High Priest, I pray for all who follow You, answering Your call. May they be like You, Jesus, ready to sacrifice everything; ready to be a victim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Jesus, with Mary, I pray for my parish priest, for all chaplains, for all priests, especially those who are tired and heavily burdened, those who are not faithful to You, those who have failed, and those leaving the priesthood. I also offer my prayers for the Bishops and for the Pope, and for those who are prevented from spreading the "Good News", who are being persecuted because of Your Name. May they know the joy of suffering in love with You.

Give grace to Your priests so that they may be able to raise in confessions all those who have fallen. May all priests be in Your image. Amen.

Jesus and Mary, here I, also, give You my life. All that I have and all that I am, I am uniting with You. I pray to You for love, that love with which You accepted pain. I desire to have it in my heart, too. Give me love in my heart so that my heart will be devout, strong, and not proud.

Message: Dear Children! Today I am calling you to the love which is loyal and pleasing to God. Little children, love bears everything that is bitter and difficult for the sake of Jesus, who is love. Therefore, dear children, pray to God to come to your aid, not however according to your desires, but according to His love. Surrender yourselves to God so that He may heal you, console you, and forgive everything inside you which is hindrance of the way of love. In this way, God can mold your life and you will grow in love. Dear children, glorify God with the canticle of love so that God's love may be able to grow in you day by day to its fullnes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25 June 1988)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s, you have helped to redeem the world.

O Mary, I cannot understand the immense pain you suffered because my heart does not love as your heart does. I cannot comprehend the depth of your love, how you desire to bring all people close to your motherly heart. How it pained your soul to be so helpless and only witness the suffering of your Son.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O Mary, Mother of Sorrows,
Intercede for us.
Is there one who would not weep,



The Way of The Cross (continued)

whelmed in miseries so deep,
Christ's dear Mother to behold?
Holy Mother
In my heart each wound renew,
Of my Saviour crucified.

FORTH STATION

JESUS, YOU MEET YOUR GRIEVED MOTHER

A station dedicated to all mothers and pilgrims! We again see the big cross that dominates the scene. Jesus's and Mary's closeness becomes a meeting. The weight of the cross almost disappears into a natural suspension, consenting to a last embrace. Mary gently caresses the face of her suffering Son. Jesus responds in an affectionate way. This is a moment of profound suffering and tender emotion. We understand how a woman bows in respect while those who are without feelings are trying to prevent this moment by hitting and pulling Jesus. I personally wish that each pilgrim and every Christian would experience exactly this in their sufferings, that Mary's closeness would become a meeting which comforts and consoles.

From the Bible: See, my servant shall prosper, he shall be raised high and greatly exalted. Even as many were amazed at him—so marred was his look beyond that of a man, and his appearance beyond that of mortals. (Is 52:13-14)

He grew up like a sapling before him, like a shoot from the parched earth; There was in him no stately bearing to make us look at him, nor appearance that would attract us to him (Is 53:2)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Jesus, in all Your pain, You were comforted when Your eyes met Your Mother's eyes. She was following You alone. Her closeness is now a real meeting. She did not try to remove the cross from Your shoulders. Her presence is encouraging for You.

O Mary, this moment was possible because of your devotion, and you neither ran away from suffering, nor were you afraid of your Son's suffering.

Thank you for comforting Him with your gentle hand, .

giving Him strength within. Thank You, Jesus, for responding with gentleness to Your Mother. You knew how much she was suffering. Jesus and Mary, thank You for walking together through su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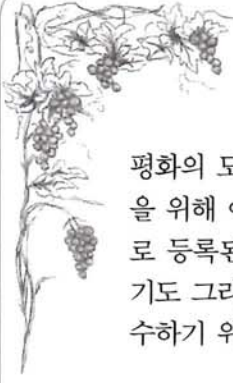
Jesus, now with Mary, I pray for all mothers and father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their children. I pray for those who cannot meet again, because they are prevented by human injustice and condemnation. I also pray for all those who do not want to meet each other again, because there is no more love and no trust in their hearts.

Message: Dear Children! Today I am calling you to completely surrender to God. Everything you do and everything you possess give over to God so that He can take control of your life as King of all that you possess. That way, through me, God can lead you into the depths of the spiritual life. Little children, do not be afraid because I am with you even when you think there is no way out and that Satan is in control. I am bringing peace to you. I am your Mother and the Queen of Peace. I am blessing you with the blessing of joy so that for you God may be everything in lif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25 July 1988)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s, you have helped to redeem the world.

Mother Mary, caress with your gentle hand all those who are looking for you and all those who are not because it is so sad to be without a mother. Ask for all mothers to be faithful to their motherhood. Embrace all of us. Renew us and your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looking at you, as the star which guides us to the final salvation.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O Mary, Mother of Sorrows,
Intercede for us.
Can the human heart refrain
From partaking in her pain,
In that Mother's pain untold?
Holy Mother, pierce me through,
In my heart each wound renew,
Of my Saviour crucified.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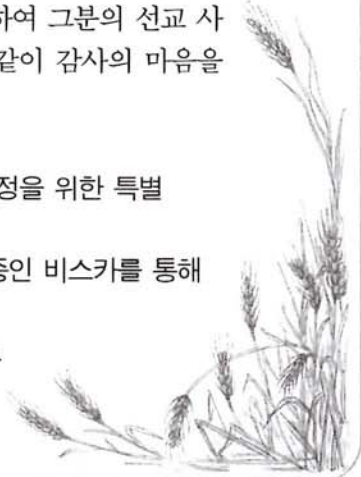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기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309 Parkside Dr Macungie, PA, 18063 ☎ 610-965-6168 Fax : 610-965-617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E-mail: _____ 소속 본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회원번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현주, 강본시아노, 권혁규, 권스티브, 글라라, 김형규, 김효정, 김부용, 김영옥, 김은희, 김정희, 김학실, 김유경, 김주희, 김영서, 김시순, 김태자, 김희정, 김헬레나, 김영희, 김혜경, 김경희, 김갑식, 길마리아, 류수연, 미리안, 박옥, 박가영, 박정희, 변혜란, 송수자, 송정순, 신규상, 신동배, 신수덕, 선영테레사, 서천원, 윤종식 신부님, 윤이경, 연재희, 유미영, 유글라라, 유리, 임효경, 임은경, 이철편, 이영희, 이지연, 이희선, 이테레사, 이경, 이은경, 이진만, 이선영, 이안나, 이테레사, 이택, 이경애, 안덕식, 오영숙, 오미정, 오순옥, 오선영, 우기호, 정광선, 전연희, 조오형, 조은숙, 조주리에따, 조영선, 전해연, 잔슨윤숙, 장로사, 장혜정, 창우엄마, 최루시아, 최동숙, 최경미, 최말세리노, 친모니카, 콜롬버스 공동체, 표상순, 한은이, 황규희, 황혜정, 황정애, 홍루시아, 익명, 35차 순례단 일동

캐나다:

문경자, 방베로니카, 유소은, 이세실리아, 윌테레사, 신한기, 이유정, 이준영, 엄안젤라, 엄테레사, 지모니카, 호베로니카,

11월 이후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 소식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35차 순례를 지도해주신 윤종식 신부님께서 순례 중에 봉헌된 미사예물 전액을 어머니 마을과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후원해주셨습니다.

* 29호 부족금 1,269.00을 익명의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29호 익명의후원금	\$1,269
30호 후원금	\$ 6,150.00
후원금 합계	\$ 7,419.00
지출 (30호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7,580.00
통신비	\$ 620.00
교통비	\$ 1,82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540.00
• 지출 합계	\$ 10,560.00
• 30호 부족금	- \$3,141.00

설터

당신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등잔이 타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심지를 태우는 몇 방울의 기름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등잔에서 그 기름방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작은 것들

곧 성실함, 친절한 말 한마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침묵을 지키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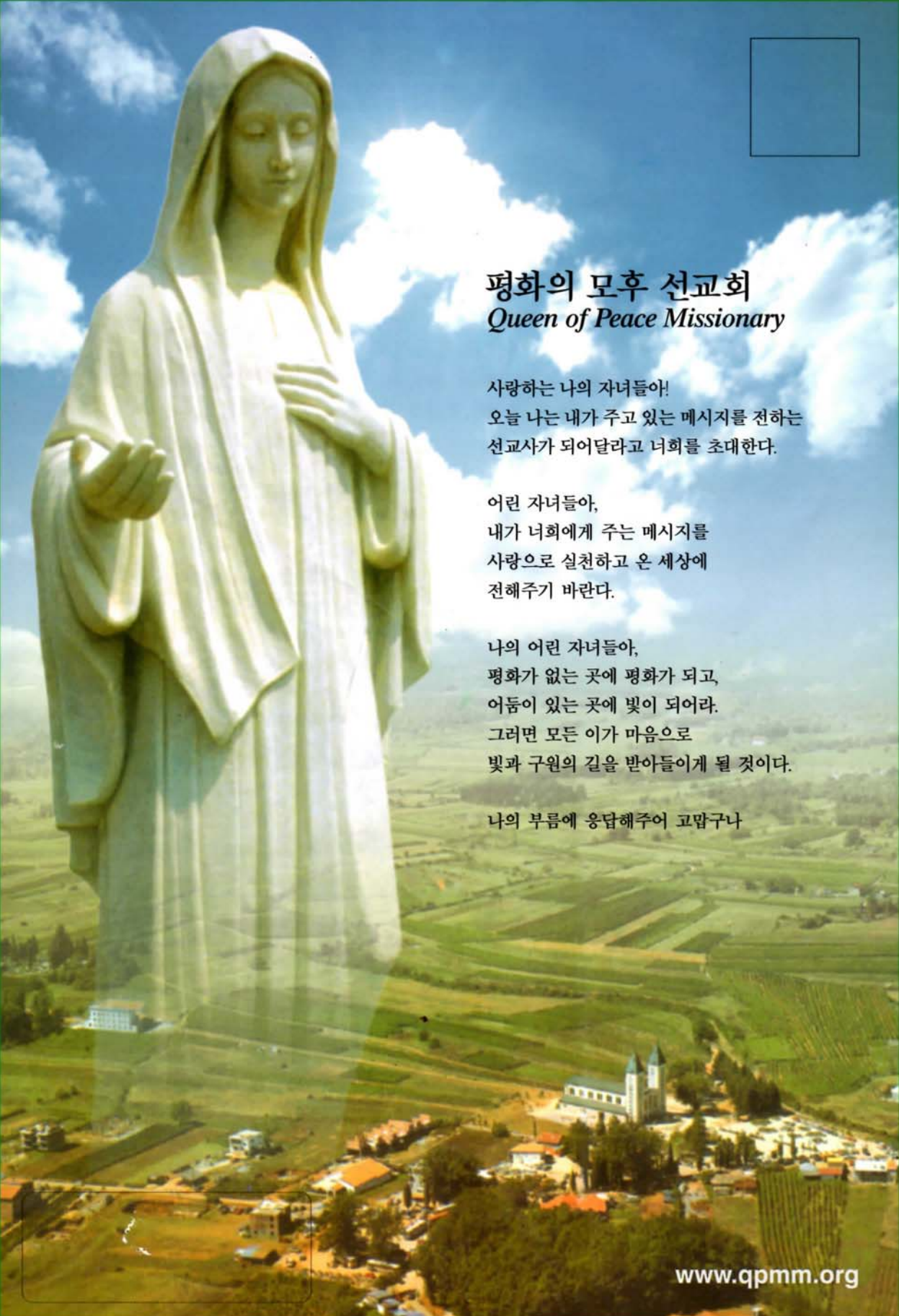
당신을 떠나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 밖에 계시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등잔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켈커다의 마더 데레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KOREA

노선택 마리스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